

서구 ‘천원의 동행’, 장애인 일상 돌봄까지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로 ‘천원세탁’ 재원 마련
‘천원정리수납’은 일자리 창출·주거환경 개선 도움

광주 서구의 대표 복지 브랜드인 ‘천원의 동행’이 장애인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를 한층 확대된다.

서구는 22일 청사 나눔홀에서 ‘천원세탁·천원정리수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착한도시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가 참여해 인력 양성, 서비스 운영, 행정 지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천원세탁’은 스스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 한 통이면 세탁물 수거부터 세탁·건조·배출까지 전 과정을 1건당 1000원에 지원하는 서비스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마련된 6200만원을 재원으로 운영돼 지역사회 나눔이 다시 돌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천원정리수납’은 시각적 감각과 손기술이 뛰어난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전문 인력으로 참여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공간 정리와 수납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구는 취업 사각지대 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착한 복지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장애인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착한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단돈 1000원으로 누리는 따뜻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의료 취약계층 이동을 지원하는 ‘천원택시’ △어르신 일자리와 나눔을 결합한 ‘천원국시’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구는 ‘천원의 동행’ 사업을 통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매워가는 착한복지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태영 기자 ty123@gwangnam.co.kr



서구는 22일 청사 나눔홀에서 ‘천원세탁·천원정리수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4-H연합회, 미래 농업 청사진 그린다

올해 활동 방향 논의 위한 연시총회 개최
맞춤형 컨설팅·AI 활용 교육 등 중점 추진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담양군4-H연합회(회장 남한별)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연시총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내실 있는 조직 운영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목표로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신규회원 관리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추진, 분야별 동아리 활동 지원, 실증시험포 운영, 각종 지원사업 추진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다양한 활동 계획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남한별 회장은 “올해는 회원 정예화를 통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교육과 현장 중심의 과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기술지원과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담양군4-H연합회는 만 39세 이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담양군4-H연합회(회장 남한별)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하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학습단체로, 농업기술 연구·공유,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농촌 사람 실천 등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광주여대 일자리센터·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업무협약

“대학-운영기관, 청년 취업 지원 협력 지속”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인 제이엠커리어, 지에스씨넷과 간담회 및 업무협약을 통해 2026년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와 운영기관 담당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2026년에는 보다 실질적인 취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협력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연계 방식,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계 방안, 지원 흐름 개선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함평 (주)아임푸드, 희망2026 나눔 캠페인 동참

함평군에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향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주)아임푸드가 최근 기탁금 300만원을 함평군에 전달하며 희망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주)아임푸드는 대동면에 매월 추어탕 200개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든든한 한 끼를 전하고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인 제이엠커리어, 지에스씨넷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진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업무 협력을 넘

어, 실제 취업 지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운영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 지원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감사하다”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기부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 유관기관 현장 소통 ‘눈길’

31개 기관 방문…협력 체계 강화·섬박람회 홍보 병행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이 이번달 초 취임과 함께 관내 31개 유관기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는 등 현장 소통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정현구 부시장의 이번 기관 방문은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천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부시장은 각 기관을 직접 찾아 주요 업무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시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여수국가산단 주요 기업을 방문해 석유화학 산업 전반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방문 기간 동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정현구 부시장은 “현장에서 듣는 의견 하나하나가 시정 운영의 소중한 자산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영광교육지원청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2026년 영광학생연합회 제1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영광교육지원청, 학생자치 출발 응원

학생연합회 제1회 정기회 개최

영광교육지원청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2026년 영광학생연합회 제1회 정기회를 열고 학생자치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정기회는 초·중·고 대표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스스로 영광학생연합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학생들은 기획과 실행 등 과정을 주도하는 자치 문화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고, 학생 간 협력적 소통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자발적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의식과 실천 역량을 키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그룹 토의에서는 영광학생연합회 운

영 방향과 ‘함께 나아가기’ 공동 실천 계획을 수립했다. 학생들은 의견 조율과 합의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실제 자치 운영에 필요한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을 키웠다.

논의 결과는 향후 연합회 운영과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병국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자치는 참여를 넘어 책임과 성장을 배우는 과정이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



곡성치유의숲, 산림치유 성료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인기’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 숲체원 소속 국립곡성치유의숲은 지난해 지역 어르신 3668명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생활밀착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지역 어르신들이 숲의 치유를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 프로젝트’다. 지난해 곡성군과 인접 지역 거주 어르신들이 최대 16회까지 꾸준히 숲을 방문하는 정기형 모델로 운영해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오감 자극으로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향노와 인지 훈련’, 일상사의 근력을 지켜주는 ‘산림운동’, 정서안정을 위한 ‘숲 명상’과 ‘차(茶) 담’,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숲속 족욕’ 등이다.

특히, 참여 전후 정신건강 상태 변화를 측정한 결과, 참가자들의 우울·불안 지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지수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치유의 실질적 효과가 입증됐다.

곡성치유의숲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숲이 지역 어르신에게 건강 관리의 필수조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